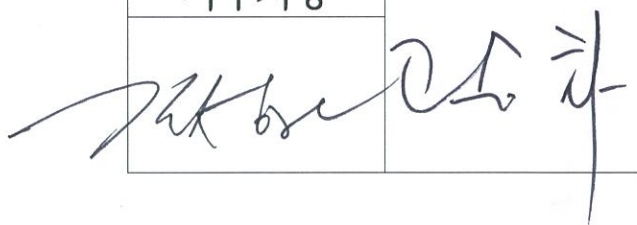


	회 장
사무처장	
	

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

2022. 3. 2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


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2. 3. 2(수) 11:00 ~ 11:30

2. 장 소 : 비대면(화상회의)

3. 참석인원 : 재적이사 30명 중 19명 참석(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)

가. 참석(16명) : 고승화, 허순임, 강지영, 고민좌, 김금자, 홍부경, 김순효, 백인협, 양창오,
원석철, 오승태, 이성덕, 이규봉, 임주리, 최은미, 이민숙

나. 위임(3명) : 송옥희, 고수희, 김문국(휴원)

다. 감사(2명) : 허철훈, 김석추

4. 개회 및 성원보고

김성건 사무처장의 성원보고 후 고승화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

5. 의장인사

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. 임원
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,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다. 그리
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.

6. 전차회의록 처리

- 의 장 : 김성건 사무처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.

- 김성건 사무처장 :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.





- 의 장 :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.

- 오승태 이사 : 원안 동의하다.

- 이사 일동 재청, 삼청하다.

- 의 장 :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.

7. 부의안 심의

가. 부의안 채택 및 상정

- 의 장 :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임용 인준안이며, 이상 1가지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안건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- 이사 일동 1개 안건 채택을 동의, 재청하다.

- 의 장 : 원안대로 1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언하다.

- 의 장 : 제1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임용 인준안을 상정하다.

나.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

- 의 장 :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처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




- 김성건 사무처장 :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다.

- 의 장 :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·토론을 요청하다.

- 강지영 이사 : 현 복지관장에 대해 재임용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다.

- 김성건 사무처장 : 우리 협회회의 수탁시설장 평가지침을 근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시설장에 대한 실적평가, 상향평가 등을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. 인사위원회는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여부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한다. 수탁시설장에 대한 평가는 2010년부터 임기만료 2개월 전 시점에 이뤄졌는데, 이번 관장 평가결과가 과거 평가 대비 나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되거나 현 상황 유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, 공모과정에서 면접결과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와 부적격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.

- 강지영 이사 : 평가항목 중 업무성과도 포함되어있는지 묻다.

- 김성건 사무처장 :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상향평가, 면접평가 등도 포함되어있다고 하다.

- 강지영 이사 : 업무성과 부분에 있어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,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한 것인지 묻다.



- 김성권 사무처장 : 평가기준이 단순히 업무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평가, 상향 평가 등 어느 한 기준이 결과를 좌우할 수 없도록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.

- 원석철 이사 : 현 관장이 12년간 관장을 역임하며 수고한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현 복지관 내 인사가 적체돼있는 상황이며 일반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년퇴직 시기도 도래하고 있기에 현 관장이 올해까지 근무하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원안 통과를 동의하다.

- 백인협 이사 : 평가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부적격 평가를 했음에도 10개월 간 근무를 통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, 내부승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.

- 이규봉 이사 : 여러 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위원으로 참여했기에 부적격 평가에 대한 전후사정을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최초 재임용 평가 시 평가결과가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해 재임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공고, 재공고 절차에 있어서 현 관장에 대한 재차 평가와 면접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기대했던 결과에 부응하지 못해 부적격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다. 다만 지난 2월 28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관장이 공석일 시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, 후임자의 안정적인 업무과악 등을 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해 현 회장 임기 종료 시기에 맞춰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다.

- 오승태 이사 : 혹시라도 복지관 직원 간의 갈등과 파벌로 인해 게임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다.

- 의 장 :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하다.

- 의 장 :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으나 현 관장이 평직원부터 시작해 26년간 복지관에 재직한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고 정리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도리인 듯해 임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다. 임원들께서 해당 안전에 대해 동의해주신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하다.

다. 부의안 처리

- 의 장 : 상정된 제1호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원석철 이사의 동의가 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.

- 이사 일동 동의, 재청하다.

- 의 장 : 제1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임용 인준안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8. 폐 회

- 의 장 : 오늘 상정된 안전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오승태 이사 : 폐회를 동의하다.

- 이사일동 폐회를 동의, 재청하다.

- 의 장 :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.

(폐회시간 11:30)

2022년 3월 2일

회 장 : 고 승



부 회 장 : 허 순



이 사 : 강 지



고 민



김 금



홍 부



김 순



백 인



양 창



원 석



오 승



이 성



이 규



임 주



최 은



이 민



확 인 자 : 김 성 건



기 록 : 고 성 민

